



2월 21일 완산불교회관서 열린 전북불교대학 졸업식 모습.

“佛法으로 전법·포교 나서자”

전북불교대학 졸업식... 졸업생 59명 배출

전북지역 전법과 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 졸업식이 2월 21일 완산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열렸다.

불교학과 28회 48명, 법학과 23회 11명의 불자가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는 천상호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과 졸업생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또 23기 전법사 5명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이 수여됐다.

학장 도원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불교대학의 졸업은 새로운 인생의 시

작이다”며 “졸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전법과 포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불교학과 주경남·법학과 교유정 불자를 비롯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1988년 설립돼 올해까지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불교대학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부처님의 교리와 불교역사 등 1년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스님들과 불일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배운 것 주변에 올바르게 회향하길”

송광사 불일불교대학 졸업식... 졸업생 72명 배출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상) 불교대학이 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순천 송광사가 운영하는 재가불자교육과정인 불일불교대학은 2월 21일 대웅전에서 방장 보성 스님과 주지 무상 스님을 비롯해 졸업생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졸업생 대표 육법공양, 연혁 및 학사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졸업장 전달과 조계종 신도 품계인 부동품계 휘장 수여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날 졸업생들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학사과정에 사용할 빈프로젝트를 사찰에 선물하고,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 200만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에 전달했다.

주지 무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교과과정을 배우는데 열심히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며 “불교는 결국 마음의 종교로 형상이나 음성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졸업을 통해 이를 주변에 회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14년 4월 조계종 포교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송광사 불일불교대학에는 2기 신입생으로 72명이 입학해 불교입문, 부처님 생애 등 이론 강의와 성지순례, 여름 수련회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권 비구니 권익증진 나서겠다”

전국비구니회 호남권 지회 신임집행부 구성

최근 전국단위 지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2월 24일 광주·전남·전북지회 집행부를 각각 구성하면서 호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증진과 역량결집에 박차를 가했다.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개최된 광주전남지회 회의에서는 기존 하나의 지회를 광주지회와 전남지회로 분리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회 신임 지회장에 금산사 주지 동현 스님을 선출하고, 총무 보혜 스님(비전사), 재무 지장 스님(동원사), 교무 일교 스님(자운사)을 3직에 선임했다. 신임회장 동현 스님의 임기는 4년이다. 반면 전남지회는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차후 지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화순 유마사 주지 일장 스님을 지회장으로 추천해놓은 상황이다.

광주지회장 동현 스님은 “광주지역 많은 회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회장 선출에 앞서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희망적인 비구니회가 될 수



광주지회 신임집행부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오른쪽 첫 번째), 왼쪽부터 지장·보혜·일장·동현 스님.



전북지회 신임집행부. 뒷줄 왼쪽부터 성목·법륜·일연·무어 스님.

광주·전남·전북지회 회의서 신임지회장 및 삼직 선임 비구니회 회칙 개정 의견 수렴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17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회 구성 △지회장 선출 △지회 운영위원회 구성 △지회 회칙 의견 수렴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 사서실장 진명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이 전북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원으로는 총무 석우 스님(정음 보림사), 재무 무어 스님(김제 귀신사), 교무 성목 스님(진안 고림사)을 선임했다.

지회장에 선출된 법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권

익증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구니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중앙 회칙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 숫자가 결정되면 지방 지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과 관련해 정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회의 목적을 회칙개정특위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선출된 소속 비구니 스님들과 관련해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이 비구니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와 민간신앙의 독특한 만남 ‘화제’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불교신앙과 민간 토속신앙이 융합된 독특한 형태의 당산제가 부안 내소사에서 열렸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안 내소사는 2월 21일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과 일주문 앞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내소사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부안대대 군장병, 내소사 인근 5개 마을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당산제는 풍물패를 앞세워 짚으로 만든 대형 용줄을 메고, 내소사에 도착해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다.

내소사 당산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 뿌리내리고 있는 당산제라는 토속신앙을 통해 지역민을 자연스럽게 사찰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 안에서 포교를 병행해 지역주민들과 사찰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여타 당산제와는 달리 ‘내소사 석포



내소사 스님들이 2월 21일 열린 당산제에서 제례를 올리고 있다.

리 당산제’는 민간주도가 아닌 내소사의 주도하에 오래도록 전승돼 왔다. 토속신앙을 받들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사찰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불교신앙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포교를 병행하는 형태로 계속돼 오고 있다.

박병우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장은 “내소사 당산제는 사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며 “사찰과 마을 주민

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결합이라는 보기 드문 복합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수령 1천년과 700년으로 추정되는 내소사 경내의 들당산과 입암마을의 날당산 느티나무에 내소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개최돼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성불사, 방생 대신 보시

10년째 자비나눔 실천

10년간 정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 사찰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는 2월 25일 노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집’을 방문해 쌀 100kg, 80인분의 떡과 과일, 김, 미역 등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종명스님과 성불사 신도회(회장 박경립) 임원 10여 명이 동참했다.

종명 스님은 “해마다 동안거 해제 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복지시설을 방문해 왔다”며 “추운 날씨에 물고기 방생법회를 하는 것보다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한층 자비실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 성불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면 지역 주민센터에 자비의 쌀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정초 방생법회를 대폭 축소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자동연등 승강 장치

인등·영구위패 시공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 단 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